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국민훈장 수훈

제10회 환경의 날 맞아 최고 무궁화장 수상 ... KBCSD 창설 공적 인정

GS칼텍스 허동수 대표이사 회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허동수 회장은 6월4일 서울 삼성동 COEX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행사에서 일반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2002년 3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창설해 기업의 패러다임을 사회공존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국가적 환경현안에 대한 기업의 개선사항을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구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KBCSD는 세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와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와의 연계를 추진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폭 시키는 한편 국가적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를 주도해왔다.

허동수 회장은 1973년 GS칼텍스에 입사해 32년여 동안 국내 정유산업의 친환경적 변화를 주도한 에너지 전문가로서,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정유산업을 주축으로 GS칼텍스를 성장시켜 왔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저감을 위한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시스템을 도입해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노력 등 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해왔으며, 모든 굴뚝에 오염물질 자동측정기(Tele Metering System)를 설치해 대기질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했고, 세계 최대규모의 폐수 재활용 시설을 도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폐열회수 보일러를 처음으로 가동해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막대한 열을 회수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화학저널 2005/06/07>